

[전체공지]

※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온전한 정의)
법을 집행하는 모든 이가 공정하게 일하여 이 세상에 더 이상 불의가
만연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 제 10 차 미 동남부 성령대회

- 일시: 2019 년 9 월 1 일(주일) 1:30pm ~ 9 월 2 일(월) 5:00pm
- 장소: 애틀란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 주제: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 강사: 왕영수 프란치스코 신부, 안정호 이시도로 신부
- 참가비: 8 월 11 일 이전 등록시 \$30, 이후는 \$40

[잭슨빌]

- 신부님께서 이번 7/18 부터 7/24 까지 시애틀 공동체 방문으로 이번주와
다음주 2 주간 평일 미사가 없으며, 다음주일(7/21) 미사는 탈라하시
최영희 바오로 신부님께서 오후 4 시에 집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 친교후에 사목회가 있겠습니다.
- 6 월 재정보고서가 게시판에 있습니다.
- 오늘 오후 5 시에 성모회 친목회가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성모회원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인즈빌]

- 다음주 미사는 신부님 시애틀 일정관계로 미국미사(오후 5 시 30 분)로
대체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174	\$240	-	-	\$414
잭슨빌	\$287	\$890	\$100	-	\$1,277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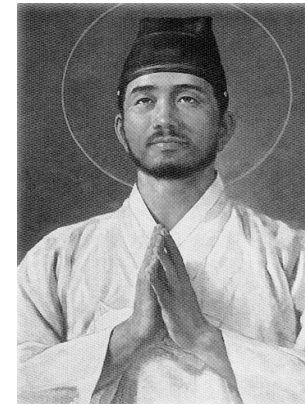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 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오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당시 율법 학자들은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질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만이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웃은 더 이상 출신 성분이나 율법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웃이고, 자비를 베푸는 이는 누구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 학자의 잘못된 이웃 개념을 바로잡아 주고자 하십니다. 어디까지 이웃인지 따지며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2 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이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부 피조물만의 만이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만이이시고, 일부만이 그분 안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있기에 서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든 이, 더 나아가 모든 만물이 이웃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이어야 합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연중 제 15 주일

[제 1 독서] 신명기 30,10-14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화답송] 시편 69(68),14 와 17.30-31.33-34.36 그리고 37(◎33)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제 2 독서] 골로새서 1,15-20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알렐루야.

[복음] 루카 10,25-37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7/13)	이호석 레오폴드	이재원 엘리사	하이흔 울리아	-
	잭슨빌 (7/14)	윤미임 데레사	최명희 크리스티나	이재민 토마스	이상미 미리암 서정원 헬레나
다 음 주	게인즈빌 (7/20)	-	-	-	-
	잭슨빌 (7/21)	서정원 헬레나	손활란 안나	최차숙 마리아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681	434	169	342
잭슨빌	64	221	169	48